



2016 OCI YOUNG CREATIVES

2010년부터 매년 지속되는 OCI Young Creatives는 독창적인 실험 정신으로 치열하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젊은 미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OCI미술관의 학예연구팀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공모에 응한 수백 명의 미술가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참신한 시도로 응축된 시대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해의 작가들을 정합니다. 선정된 작가는 총 1,000만 원의 순수 창작지원금으로 작업을 준비하고, 이를 선보이는 별도의 초대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2016년,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OCI Young Creatives를 소개합니다.

박석민, 오세경, 우정수, 이은영, 임노식, 임현정

미완의 단계에서 이미 작가적 역량을 충분히 보여준 이들이 우리 미술계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노식

안에서 본 풍경

2016 5.19 - 6.12

두 개의 문이 있다. 왼쪽을 보아도 오른쪽을 보아도 대동소이한데, 하나는 들어가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나오는 문이다. 문의 구조에 따라 한 발자국씩 몸을 옮기다 보면, 빙그르르 회전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데 어디는 '안'이고, 다른 쪽은 '밖'이라고 한다. 잘 모르겠다. 내가 나아가는 방향, 하는 행위는 같은데, 이 안밖의 구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처음에는 목장을 탈출한 젖소 한 마리가 제기였다. 어느 날, 집에서 기르는 소가 250볼트의 전기 울타리를 넘어 바깥으로 나갔다. 그런데 소는 멀리 도망가가는커녕, 몇 시간 동안 목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다시 울타리를 툭툭 뛰어넘어 돌아왔다. 그것도 젖을 짜는 시간에 맞추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상하다. 어느새 목장이라는 공간이 심리적 순응의 기계로 작동한다. 적정량의 먹이를 공급하는 <급여기>나 우유를 짜는 <착유실> 등 분별 기능적인 장소 구획인데, 마치 그것이 절대적 규율과 질서라도 되는 양 제화된다.

이에 임노식은 소와 치지를 바꾸어보기도 하듯, 소가 바라보는 낮은 시선으로 목장의 구획구석을 포착한다. 선불리 밭을 내던지 않은 채 안과 밖, 나와 타자의 경계에서, 어느 쪽도 친해하지 못한 풍경은 회색 지대에 남겨진다. 우리가 사는 사회 역시 커다란 목장이 아닌가. 목장을 그리며, 임노식은 공간과 경계의 의미를 꼼꼼이 되새김질한다.













































